

진짜사장·진짜교섭

2026. 1. 28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 현대제철비정규직·내화조업정비 현대모비스 아산·천안·서산·아산물류·EBS천안 비엠아이 테크젠

따로, 또 같이 원청교섭 쟁취를 향해!

금속노조는 5월 한 달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자본을 규탄하고 원청 자본의 책임을 묻는 전국의 집중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경주 현대HL 동지들은 현대모비스의 일방적인 사업부 매각에 맞서 23일간 전면파업 끝에 원청 현대모비스를 합의주체로 끌어냈습니다. 구조조정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만 하던 원청 자본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강제하여 책임지게 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스코, 한화오션,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자본을 상대로 투쟁하며 5월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한국지엠 생산과 물류 비정규직 동지들은 교섭요구를 묵살하는 지엠 원청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동희오토 동지들은 노동위원회 결정에도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을 상대로 현장투쟁과 조합원 확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비정규직 동지들도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위아 자회사 테크젠-모비언트 동지들은 6월 11일 상견례를 요구하여 투쟁대열에 합류합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동지들은 6월 총파업을 선포하고 현대차 재벌의 심장부, 양재동으로 향합니다. 현대차 계열사의 노무정책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본사에 직접 책임을 묻습니다.

현장이야기 8



비엠아이는 눈치 그만보고 교섭 나와라 껌데기뻐인 교섭, 이제 그만!

비엠아이지회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원청 비엠아이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하청업체를 방패막이 삼아 뒤로 숨는 비엠아이의 비겁한 행태는 한계에 왔다.

우리가 원청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교섭구조가 원청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희망고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는 결정권이 없는 '아바타'에 불과하다. 그동안 하청업체와 수년간 교섭했지만, 업체 교섭대표는 우리 요구에 대해 단 한 번도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며 무능함을 고백할 뿐이었다. 심지어 교섭 도중 사측 대표는 "원청과 논의하고 오겠다"며 달려가기 일쑤였다. 이게 무슨 교섭인가?

5월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차, 한국지엠 규탄 투쟁 진행
6월 현대제철비정규직 현대차그룹 본사 타격 준비
테크젠-모비언트 노동자, 현대위아에 상견례 요구 예정
6.10 간부상경투쟁, 7.15 총파업 돌입, 투쟁속도 빨라진다

6월 전국의 금속노조 간부 동지들은 서울에 집결하여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의 파고를 높입니다. 금속노조는 7월 총파업과 8~9월 2,3차 총파업을 통해 올해 진짜 사장을 교섭장에 앉히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의 선봉대는 원청교섭 투쟁 조합원,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원청 자본을 상대로 각기 다른 공간에서 교섭과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의 원청교섭 투쟁사업장 동지들은 하나의 깃발, 하나의 투쟁으로 서로 연결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6.10 상경투쟁과 7.15 총파업으로 하나의 목표 아래 같이 싸우고 있음을 확인합시다



원청은 자신의 직원을 책임지는 결정권조차 없는 하청업체를 교섭장에 내세우고 있다. 이런 교섭은 시간낭비이고 노조를 기만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또한 원청 지침의 전달창구일 뿐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 안건은 없다. 업체 사장은 "원청과 차후에 회의시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오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노조는 원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회의결과라고 전달받는 식이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원청 자본의 비용절감 논리와 경영상 편의에 의해 걸러지고 묵살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조치 원청의 승인없이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전달자가 아닌 결정권자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원청 비엠아이는 지금 당장 교섭장으로 나와라!

오승훈 / 금속노조 충남지부 비엠아이지회장